

2 0 2 2 수 능 국 어

수 능 특 강

FULL-E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산문편

#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수능특강 FULL-E **산문편** 은.....

### 📖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문학 작품은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해석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 📖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이 모의평가, 수능,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의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전적으로 연계 작품을 학습해야 합니다.

### 📖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결정적 장면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산문 문학의 경우 EBS 연계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연계 교재에 실린 지문의 일부만 출제되거나  
전혀 다른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품 간추려 읽기'를 통해  
전체 줄거리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결정적 장면'을 통해 연계 교재에 실리지 않은  
다른 주요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나 열려 있는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http://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국어 전공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제작했습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정답과 해설'은 책 속 책의 형태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과 학습 계획을 함께 안내합니다.

## 3주 완성 PLAN

DAY	PAGE	작품	학습 CHECK
1	P.010~P.018	01 송지양, 「다모전」 / 02 작자 미상, 「도미 설화」 / 03 작자 미상, 「설씨녀 설화」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	P.019~P.032	04 설총, 「화왕계」 / 05 유방선, 「김 장관 댁 죽헌기」 / 06 임춘, 「국순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3	P.033~P.058	07 박지원, 「호질」 / 08 심의, 「대관재몽유록」 / 09 작자 미상, 「매화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	P.059~P.090	10 작자 미상, 「유충렬전」 / 11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5	P.091~P.122	12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13 작자 미상, 「배비장전」 / 14 작자 미상, 「천지왕본풀이」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6	P.123~P.149	15 작자 미상, 「박태보전」 / 16 작자 미상, 「흥보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7	P.150~P.184	17 작자 미상, 「운영전」 / 18 작자 미상, 「심청가」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8	P.185~P.202	19 박지원, 「발승암기」 / 20 이옥, 「심생전」 / 21 작자 미상, 「김수로왕 신화」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9	P.203~P.236	22 김만중, 「구운몽」 / 23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 24 작자 미상, 「산성일기」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0	P.237~P.250	25 이학규, 「포화옥기」 / 26 이재현, 「운금루기」 / 27 남구만, 「용암정기」 / 28 의유당, 「동명일기」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1	P.254~P.272	01 김채원, 「겨울의 환」 / 02 이상, 「날개」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2	P.273~P.303	03 이광수, 「무정」 / 04 김유정, 「떡」 / 05 이태준, 「돌다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3	P.304~P.328	06 안수길, 「제3인간형」 / 07 손창섭, 「비 오는 날」 / 08 서정인, 「강」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4	P.329~P.347	09 최인훈, 「광장」 / 10 김원일, 「어둠의 훈」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5	P.348~P.374	11 홍성원, 「무사와 악사」 / 12 양귀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13 성석제, 「투명 인간」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6	P.375~P.399	14 현기영, 「순이 삼촌」 / 15 이호철, 「나상」 / 16 권여선, 「이모」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7	P.400~P.428	17 임철우, 「사평역」 / 18 채만식, 「치숙」 / 19 이문구, 「우리 동네 황 씨」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8	P.429~P.452	20 공선옥, 「한데서 울다」 / 21 이동하, 「문 앞에서」 / 22 장진, 「웰컴 투 동막골」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19	P.453~P.484	23 차범석, 「산불」 / 24 최석환, 「라디오 스타」 / 25 이해준, 「김 씨 표류기」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0	P.485~P.504	26 이강백, 「북어 대가리」 / 27 김소운, 「특급품」 / 28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21	P.505~P.516	29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 30 법정, 「설해묵」 / 31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 32 박완서, 「죽은 새를 위하여」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 구성과 특징

## Structure & Features

**01** 김재현 **겨울의 환** [수록] 01:05

**한/줄/평**

『나미 들어 가는 여자의 발발』에 대해 글을 쓰며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함

**작품 간추려 읽기**

『나미 들어 가는 여자의 발발』에 대해 써 보라는 ‘단상’의 권유에 따라 펜을 들었어. 글을 쓰는 일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미 들어 가는 여자의 발발’이라는 말을 듣고, 그동안 느끼려 애써 쓰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비로소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나미’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글을 마릿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가. ( **김재현** ) ‘나미’는 조금 전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산불은 오늘 할머니 요실에서 다인과 집안 아저씨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나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해. 어머니는 반항을 하던지 몰라도 아이였을 때도, 다인의 손이 닿아서 반항이 많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사 생활을 오래 한지 어머니는 화를 잘내지 않는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얻어 생활하고 동생이 태어나면 때때로 서방이 되었고 때때로 어린 시절 집에는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독특한 맛의 된장찌개를 자랑했는데, ‘나미’는 어머니 소식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도 단상만 반항은 아니었다고 기억해. 할머니는 ‘단상’의 반항을 화려하는 애인이었지만, 그와 달리 어머니와 다인은 반항을 애부하는 힘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해. ( **김재현** ) 이때 다인의 결혼 생활을 돌아봐 봐. 시몬 등. 씬을 온갖 온갖

### 한/줄/평

작품의 핵심을 잘 보여 주는 한줄평을 수록하였습니다. 반복하여 확인함으로써 실전에서 작품의 핵심 내용이 쉽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합니다.

### 작품 간추려 읽기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구어체로 쉽게 설명합니다.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부분, 결정적 장면으로 수록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짧은 작품의 경우 ‘작품 전문 읽기’로 실었습니다.

### 결정적 장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장면들을 꼽아 수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나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부분에 형광펜을 긋고 구어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적절한 내용의 선지들을 분석하여, 근거가 되는 각 장면 아래에 수록하였습니다. 연계 교재에서는 작품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출제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선정 이유

이 장면이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당 장면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문제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구어체로 쉽게 설명 합니다.

**결정적 장면**

① **형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동생 - 전쟁 포로가 되어서 만난 형제**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묵묵 그 경비병에게서 **잠 한 덩이쯤 얻어 놓았다.**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더욱더욱한 게 꽤 익숙무라기이면서도 한편으로 성미 **급한 우악한 대가 있었다.** 결정하 면 더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의 집인 줄 아느냐. **이리면서 형을 후회하는 것이었지만 형이 영영 올면 되질너널 웃으 며 재미있어했다.** 이리다가도 저녁이면, “아, 낮에 애디 갔었다..... 네 어미가 노릇을 좀 해야겠다.” **꼭 밥 한 덩이를 더 얻어 주곤 했다.** 경비병은 형에게 폭력을 가하진않도, 한 번씩 밥 한 덩이를 더 두고 싶어. 이왕이 다대위 마대되어 있다는 알지만, 경비병의 의도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양-되는 성격과 형의 탄력적인 힘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EBS는 이렇게 물었다**

① 소재의 기능: ‘잠 한 덩이’는 동생을 걱정하고 위하는 형의 마음이 담긴 소재로 관계 개선의 매개가 됨  
 ② 구절의 이해: 경비병은 폭력으로 형을 속게 만들지만, 기금 밥 한 덩이를 더 주는 인성을 베풀

**작품 선정 이유**

이 작품은 6·25 전쟁 중 포로로 잡힌 형제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야. 한편 이 작품은 ‘나미’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쟁 때 복원군 포로로 동행했던 형제에 대해 전해 들은 외부 이야기와 이들 형제를 돌보던 인물로 한 내용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어. 따라서 ‘잠’ 한 덩이를 ‘나미’가 다시 전하는 ‘이동 화차’의 성격들 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위 장면에서 동 모처럼 동해 보이는 형은 잘 먹고, 잘 자는 탄력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지. 그리고 형이 경비병에게 밥을 구해다가 동생과 나눠 먹는 모습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동생을 위하는 형의 유려와 능숙한 인간성을 확인할 수 있지. 형이 탄력적인 성격 과 함께, 동생이 형에게 거만한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형을 대하는 동생의 심리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장면은 특목할 만해.

**EBS <보기>의 공식**

영제는 불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하던 당대에 아직 불건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임

**결정적 장면**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 찾아가 할 사람. 성가야 할 사람으로 앞임을 뿐이야.”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할지니.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죽어 버리는 것이 의미가 아닐까요?”

영제가 부친의 말은과 ‘고성의 교훈’ 등을 찾아 유교적 관습을 중시하던 것에서 불건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근대적 여성의 모습이 드러남

### EBS <보기>의 공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기>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작품의 핵심

작가 소개 김유정

강원도 춘천 출생. 농촌의 가난한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렸다. 구수한 사투리와 토속어를 자주 구사했으며 평소 리의 문체를 계승한 작품도 많이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봄·봄』, 『동백꽃』, 『만무방』, 『명발』, 『파리지』 등이 있다.

주제 농촌의 비참한 현실과 인정 없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

서술상의 특징

- 관찰자인 '나'가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며, 사건에 개입하기도 함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 '옥이'가 뒷짐을 떠고 개동네 뒤편을 따라 새 아무 계획도 없었다. 등  
 - 묘사를 통해 인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함 **예** "고깃국에 밥 마는 사람에 살먹을 법은 사람~그리고는 까워 없이 깔깔댄다." 등  
 - 비속어를 통해 현장감을 살림 **예** "올아봐라 이년, 죽일 타이니" 등

주요 인물

나	서술자. 옥이네 가족이 겪은 일에 대해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 주인. 배탈이 난 옥이 앞에서 경만 읽는 봉구를 꾸짖어 침을 흘려 하는 등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도 함
옥이	굶주림 때문에 늘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일급살 짜리 여자아이. 잔칫집에서 과식을 했다가 배탈이 크게 남
덕희	옥이의 아버지. 개동네 집에 얹혀사는 농부. 훈자 음식을 먹고 온 옥이에게 화를 냄
옥이네	냉증을 앓고 있어 방안에만 누워있다가 배탈이 나 돌아온 옥이를 보고 놀라 정장(잔) 봉구를 불러 올
봉구	동네의 정장이 겸 풀밭이 한의사. 배탈이 난 옥이를 치료한다고 경을 읽다가 '나'의 편전을 들고

02-작품의 핵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가 소개, 주제, 서술상의 특징, 주요 인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로 확인하기

평가원 모의평가, 수능,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 대 산 문

[22제시문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영호

[일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정로의 형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던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텐데..... 그것이 옳은 일이  
지..... 응, 그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던 말인가, 어리 줌 오게."

형식은 말기니 싫다.  
"자네 지금 것같이 신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  
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니, 저편은 나쁜 원해서 무슨까지 배리라고 한대

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편에게서 차를 탄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며,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며 '아아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한편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에게 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정답과 해설

02 ㉠

정답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1~04] 0809모형 이상: '날개'

01 ㉡

정답 ㉠  
7. 횡단은 1인칭 서술자 '나'가 자신의 의식을 혼잣말하는 듯한 말

정답 ㉠  
"나는 미쓰코시 옥상에서 최락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피곤한 생활', '피로와 공박' 등을 느낀다. 그리고 미쓰코시 옥상에서 내려온 후에 '나'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미쓰코시 옥상을 통해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지 않는다. '나'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정오 사이엔들 들은 이후이다."

정답 ㉠  
㉠ '나'는 자기 아무 대나 주저앉아서 내 자리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에서 '나'는 미쓰코시 옥상에 있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 따라서 미쓰코시 옥상은 '나'와 허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나'는 매우 높은 건물인 미쓰코시 옥상에서 최락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거리 전체를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미쓰코시 옥상은 최락의 거리를 일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 '나'는 최락의 거리를 '피곤한 생활'이 '행복'이라고, '보이지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정·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전산문

01	송지양, 「다모전(茶母傳)」	P.010
02	작자 미상, 「도미(都彌) 설화」	P.014
03	작자 미상, 「설씨녀(薛氏女) 설화」	P.016
04	설총, 「화왕계(花王戒)」	P.019
05	유방선, 「김 장관 덕 죽헌기(金場官宅竹軒記)」	P.022
06	임춘, 「국순전(麴醇傳)」	P.026
07	박지원, 「호질(虎叱)」	P.033
08	심익,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	P.041
09	작자 미상, 「매화전(梅花傳)」	P.049
10	작자 미상, 「유충렬전(劉忠烈傳)」	P.059
11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P.076
12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P.091
13	작자 미상, 「배비장전(裵裨將傳)」	P.104
14	작자 미상, 「천지왕본(天地王本)풀이」	P.118
15	작자 미상, 「박태보전(朴泰輔傳)」	P.123
16	작자 미상, 「흥보가(興甫歌)」	P.130
17	작자 미상, 「운영전(雲英傳)」	P.150
18	작자 미상, 「심청가」	P.166
19	박지원, 「발승암기(髮僧菴記)」	P.185
20	이옥, 「심생전(沈生傳)」	P.190
21	작자 미상, 「김수로왕(金首露王) 신화」	P.198
22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P.203
23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P.225
24	작자 미상, 「산성일기(山城日記)」	P.232
25	이학규, 「포화옥기(匏花屋記)」	P.237
26	이제현, 「운금루기(雲錦樓記)」	P.240
27	남구만, 「용암정기(龍巖亭記)」	P.243
28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P.246

## 현대산문

01	김채원, 「겨울의 환」	P.254
02	이상, 「날개」	P.263
03	이광수, 「무정」	P.273
04	김유정, 「떡」	P.286
05	이태준, 「돌다리」	P.295
06	안수길, 「제3인간형」	P.304
07	손창섭, 「비 오는 날」	P.310
08	서정인, 「강」	P.316
09	최인훈, 「광장」	P.329
10	김원일, 「어둠의 훈」	P.339
11	홍성원, 「무사(武士)와 악사(樂士)」	P.348
12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P.357
13	성석제, 「투명 인간」	P.366
14	현기영, 「순이 삼촌」	P.375
15	이호철, 「나상」	P.384
16	권여선, 「이모」	P.391
17	임철우, 「사평역」	P.400
18	채만식, 「치숙」	P.410
19	이문구, 「우리 동네 황 씨」	P.417
20	공선옥, 「한데서 울다」	P.429
21	이동하, 「문 앞에서」	P.436
22	장진, 「웰컴 투 동막골」	P.444
23	차범석, 「산불」	P.453
24	최석환, 「라디오 스타」	P.464
25	이해준, 「김 씨 표류기」	P.477
26	이강백, 「북어 대가리」	P.485
27	김소운, 「특급품」	P.495
28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P.501
29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P.505
30	법정, 「설해묵」	P.508
31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P.510
32	박완서, 「죽은 새를 위하여」	P.513

· 산문편 ·

# 고전산문

06 고전산문

임춘

국순전(麴醇傳)

한/줄/평

술의 의인화를 통한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작품 간추려 읽기

특수특

국순은 '누룩술'이란 뜻으로 '술'을 의인화한 주인공의 이름이야. 그의 묘상은 모(牟)로 보리를 뜻해. 어느 날, 임금은 백성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모의 소문을 듣고 예물을 후하게 보내도록 하였어. 또한 신하에게 명하여 그의 집에 가도록 했는데, 모는 교분을 맺으며 사람들과 사귀었고 상대방을 강화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지혜와 덕이 있어 임금은 그에게 상과 '국씨'라는 성을 내렸다고 해. 모의 5세손은 태평성대를 이룩했지만, 강왕 즉위 후 홀대를 받아 민간에 숨어 살았대.( **영역 결정적 장면 ①** )

특수특

위나라 초기에 국순의 아버지인 두(屠)(노두)의 이름이 세상에 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진나라가 들어서자 두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리라는 것을 알았고 유영, 완적의 무리와 독림에서 놀며 일생을 마쳤어. 눈은 도량이 넓고 커서 마치 만경의 바다 물결과 같았어. 눈이 풍기는 기운은 한 세상을 뒤엎을 만하여 사람들은 그를 국태사라 부르기도 했대.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다가도 만일 국태사가 오지 않으면 모두가 발발한 표징이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 그런데 거원은 그런 눈을 보고 그가 당차 탄하를 탈모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어.

진의 후주(候主) 태, 임금은 신하와 회의를 할 때 반드시 눈을 시켜 술잔을 채우게 했고 이에 눈은 특권을 얻어 무언이든 자기 뜻대로 하게 되었지. 임금은 두사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날 임금이 눈의 입에서 늘 냉내가 나자 싫은 기색을 보였고, 눈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 눈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탄력들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며 그의 자손이 중국에서 번성하게 되었지.

역사가는 '술'의 묘상은 훌륭하였으나 눈은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거원의 평가가 옳았다고 이야기해.( **영역 결정적 장면 ②** )

결정적 장면

① '국순'의 가계에 대한 소개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다. '국순'은 술을 의인화한 인물인데, '국'은 술의 재료인 누룩이고 '순'은 술을 말해. 그의 선조는 농서(隴西) 지역 출신이다.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牟)는 후직(后稷)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물의 일대기 형식의 '전'은 인물의 가계, 생애, 개인의 성품, 공적을 기록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작품은 인간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속성과 가치를 인간사와 연관 지은 '가전'인데, '국순전'은 즉 술을 의인화한 작품이라고 보면 돼. '모'는 '보리'를 의인화한 인물이야.

**리** 『시경(詩經)』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하지 않고서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다. 보리가 '밭'에서 나는 걸 말하는 거야. 뒷날 임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조서를 내려 안거(安車)\*를 보내 모를 불렀다.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친분을 맺었으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다. 이에 훈훈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점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은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라고 말했다.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주었다. 그 뒤 모는 임금을 따라 환구에서 제사를 지냈다. 임금은 그 공으로 모를 중산후(中山侯)로 책봉하고, 식읍(食邑) 1만 호와 식실봉(食實封) 5천 호를 내려 주었으며, 국씨(麴氏)라는 성을 하사했다. 여기에서는 '국눈'의 가계에서 90대 토낭인 '모'의 성공과 공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모의 5세손은 성왕(成王)을 도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강왕(康王)이 즉위한 뒤, 모의 5세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모의 5세손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졌고, **E2**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모'가 '사람들의 귀원을 가리지 않고 틈틈이 맺'는 등의 모습은 늘을 적당히 조절했을 때 발휘되는 늘의 이덕이고, '모의 5세손'이 벼슬을 금지 당한 것은 금주령, 즉 늘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 '국눈'의 집안 내력을 소개한 내용이야.

\*안거: 노약자나 부녀자가 앉아서 타고 갈 수 있게 만든 수레.

### EBS는 이렇게 물었다

**E1** 구절의 이해: 국순의 선조인 '모(보리)가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영향을 끼침

**E2** 구절의 이해: 강왕이 즉위한 뒤 모의 가문이 고난을 겪음

### 장면 선정 이유

이 작품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기록한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 가전체 문학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상의 가계를 서술한 '도입', 의인화된 대상의 생애를 서술한 '전개', 그 대상에 대한 제3자의 평가를 담은 '비평'의 순서로 전개돼. 이 작품은 이러한 구성을 통해 늘과 인간의 관계와 늘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흥망을 비판·풍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위 장면에서는 늘을 의인화한 '국눈'의 토낭과 내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전체 문학의 '가계'이면서 작품의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 두자.

## ② 국순의 공과와 그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순(醇)의 재주와 도량이 크고 깊으며 넓기가 만경창파(萬頃蒼波)와 같아,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혼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 주었다. 순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졸도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 사람들이 순을 국처사(麴處士)라 했다. 공경대부, 신선, 방사(方士)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두 순을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여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이 순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여기에 서는 국눈(늘)이 대주와 도량이 크고 넓은 자질을 가지고 있음과 함께 늘이 '사람들에게 기운'을 더해 주고, '들거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제시했네. 국순의 행적 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음

**E3** 태위 산도(山濤)\*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라고 했다. 거원(거산도)이라는 인물이 미래에 국눈이 사람들을 잘못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어. 늘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폐해를 예측한 것이라 볼 수 있지. 공부(公俯)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로 임명했으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평원독우(平原督郵)\*로 벼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p>작가는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순전」에 담아냄</p>	<p><b>임금 결정적 장면 ②</b>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듣고 알아, 내 마음을 열어 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 주는구려.”라고 했다.’</p>	<p>해제                      임금이 술이 마음을 ‘열어 주고’, ‘풍부하게’ 해 준다는 이유로 순을 아끼는 부분은 작가가 생각한 술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여 줌</p>
<p>작가는 「국순전」에 숨어 지내며 존경받고 사는 것이 벼슬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식을 담아냄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함</p>	<p><b>임금 결정적 장면 ②</b>                      ‘임금은 그것을 싫어해~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순은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죽었다.’</p>	<p>벼슬에 오른 순이 쫓겨 나고 죽게 된 과정을 통해 벼슬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숨어 지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냄</p>
<p>작가가 당시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해 가졌던 불만과 비판 의식이 「국순전」에 반영됨</p>	<p><b>임금 결정적 장면 ②</b>                      ‘이로부터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지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다.’</p> <p><b>임금 결정적 장면 ②</b>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 만하구나.’</p>	<p>순을 미워하는 선비들의 여론에 개의치 않고 그를 보호하는 임금의 모습을 통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와 그로 인해 부패한 정치 현실을 비판함</p> <p>사신은 술의 폐해를 예언한 거원의 말에 동의하며 충언을 하지 못하는 순과 같은 신하에 대해 비판함</p>

E-작품의 핵심

작가 소개 **임춘**

고려 중기의 문인. 무신란 때 가문 전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겨우 목숨을 보전했다. 글이 뛰어났으나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여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주요 작품으로 「국순전」, 「공방전」 등이 있다.

**주제** (술을 의인화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한)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서술상의 특징

- ‘술’을 의인화하여 ‘가계-인물의 생애-평가’의 3단 구조로 이루어진 전기적(傳記的) 구성을 취함
- 의인화된 사물로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적인 성격을 지님
- 사물에 얽힌 전례와 고사를 활용해 현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근거** ‘강왕이 즉위한 뒤~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진나라 후주 때에 좋은 집의 자식들을 주객원외랑으로 임명했다.’, ‘금으로 사발을 덮어’ 등

[1409도평B]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P.02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B]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藥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꼬?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

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로 임금은 곧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

[C] 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D]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鬱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잔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E]

옹고 그림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족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칭주중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출사: 벼슬에 나아감.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증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말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서 인물의 가계와 성품, 생애, 공과(功過) 등을 '가계-행적-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내었다.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警戒)하려는 성격이 강해 교훈성을 지닌다.

가계	행적	논평
	출사 전 — 출사 후 — 후일담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하여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04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 산문편 ·

# 현대산문

05 현대 산문

이태준

돌다리

한/줄/평

[ 땅을 물질로만 보는 생각에 대한 비판과 땅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신념 ]

작품 간추려 읽기

탕넙은 학창 시절에 자신의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농업학교로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의전에 들어가 의사가 돼.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맹당 누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병원을 운영하여 성공하디. 그는 병원이 쫓아 큰 건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모자라는 돈은 시골의 농토를 팔아 해결하기로 계획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정정적 장면 ①** )

한편 탕넙의 아버지는 근검하기로 노운이 난 인물이야. 부지런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논과 밭을 가꾸는 데에 모든 정성을 들이고, 동네와 읍내 갈까지 닦디. 탕넙이 마을에 들어설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당마에 터내려간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어.

특수

탕넙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가서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돈을 많이 벌면 땅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지. 즉답을 피하고 돌다리를 고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탕넙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땅을 장사하든 사고파는 세태를 비판해.( **정정적 장면 ②** ) 내댈 김에 유언(遺言)이라며, 탕넙의 증조할아버지 대

특수

부터 가꾸어 온 농토를 자신이 죽기 전에 돈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팔 것이며, 땅값은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노획을 팔아 해마다 갚아 나가게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디. 탕넙은 자기의 세계와 아버지의 세계가 완전히 결별하였음을 체함하고 서울로 올라가.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고쳐 놓은 돌다리로 나가 양피와 세수를 하고, 돌다리를 늘 보살피는 것이 천리(天理)임을 되내겨.( **정정적 장면 ③** )

정정적 장면

① 창섭은 수술실을 갖춘 개인 병원을 마련할 자금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찾음

정거장에서 썸말 십 리 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필락말락한 데서부터 썸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는데, 뒤 문장을 보면 이 배경이 '탕넙의 시각에서 제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공동묘지'라는 장소가 눈에 띄네. 왜 뒷 부분에서 공동묘지를 제시한 걸까?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꽃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모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짐어 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 보며 목례를 보냈다. '창옥의 무덤'을 생각하는 건에서 탕넙이 고향땅에 들어설 때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 이유'구나.

다만 오뉘뻘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 들어가 의사를 청해 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 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謬診)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腹膜)이 절망적으로 상해 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盲腸炎)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탕넙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네. 누이인 '탕옥'

### ③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확인한 창섭은 아버지 세계와의 결별을 느낌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異端的)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창섭은 아버지가 땅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이 자신과는 다름을 깨닫고, 땅을 판 돈을 병원 확장에 쓰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짐작하고 있어. 아버지는 상을 물리기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탄핵하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謀利之輩)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하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구.....” 아버지는 창섭이 의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가업을 인치 않아 집안 대대로 경작해온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훑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났던 걸 한하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 밭을 내논다구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遺言)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어 나가게 할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루 그때 데려가렴.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짧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땅은 농민을 위해 팔 건이라고 유언까지 남겨.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땅과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신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인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sup>E2</sup> <sup>E3</sup> <sup>E4</sup>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버지로 표상되는 전통의 세계와 ‘자기’(창섭)의 세계로 표상되는 근대(실리)의 세계가 나뉘면서, 아버지의 세계와는 결별하게 돼. 그렇다고 해서 부자간의 정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야. 창섭은 ‘우리 아버지인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세계를 존중하고 있잖아.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싶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sup>E5</sup>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서늘 대안이 바뀌고 있지? 조금 전까지는 두로 아들이 창섭의 시각에서 사건이 서늘되었지만, 이 부분에서 아들은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고, 대신 아들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드러나.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白樂天)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뺏속이 고픈 것은 참아 가며 입에 얻어 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

만 가을 바람 소슬한 추녀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아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諷刺)의 시였다.** 아버지가 **‘둥지를 터나버린 내기 제비를 서운해 하지 마라. 너희들도 예전에 그랬었다.’**라는 백낙헌의 시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 아버지는 이러한 결별이 어쩔 수 없는 논리를 깨닫고 있는 거지.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굵으로도, 가운데굵으로도 끝엿굵으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 쭈우쭈 찰쭈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텃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꼬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 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 시 이가 저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 각하였다. **아버지는 자식의 뜻을 거절한 건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땅을 팔아야 한다는 아들의 의견을 거절한 자신의 처사가 옳았음을 확신하고 있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 명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 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 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아버지의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이야. ‘사람이란 천리(天理), 곧 하늘이 정 해준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이 작품의 두테이며, 이익을 좇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대를 향해 던지는 탄탄한 통고이기도 하다.

\*전장: 논밭.

### ● EBS는 이렇게 물었다

- E2 인물의 심리: ‘결별의 심사’는 아버지가 ‘땅’에 대해 지닌 ‘일종 종교적 신념’을 창섭이 확인한 이후의 심리임
- E3 인물의 심리: ‘결별의 심사’에는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이라고 여기면서도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것을 느끼는 창섭의 모순적인 심리가 담겨 있음
- E4 인물의 심리: ‘결별의 심사’에는 창섭의 계획을 ‘이단적인’ 것이라고 보는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 E5 인물의 심리: ‘불안스러운 심사’에는 선조들이 ‘공들여 이룩해 놓은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아버지의 심리가 담겨 있음

### ☞ 장면 선정 이유

작품의 결말 부분이야. 두로 탕넙의 시각에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탕넙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는 ‘아버지’의 시각에서 서늘이 이루어지 지. 이 부분을 통해서는 작가가 ‘탕넙’의 근대적 의식보다는 ‘아버지’의 전통적 의식에 비중을 더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아버지’의 독백은 작품의 두테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주면 ‘돌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면 ‘돌다리’는 시간을 건너는 수단인 동시에 현대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을 이어주는 통합된 존재의 뿌리 를 의미해.

〈보기〉의 내용	작품의 근거	해제
<p>「돌다리」에서 서사의 근간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합리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것임</p>	<p><b>결정적 장면 ②</b></p> <p>‘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 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p>	<p>병원을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보는 창섭은 땅도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p> <hr/> <p>창섭은 부모님의 도시 이주, 가격이 싼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 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나열하는 반면 아버지는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임’ 등을 이야기하며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음</p>
<p>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전개되는 인물 간 대화,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화법이나 어조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작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가치를 암시하며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음</p>	<p><b>결정적 장면 ②</b></p> <p>‘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p> <p><b>결정적 장면 ③</b></p> <p>‘창섭은 입이 열려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p> <hr/> <p><b>결정적 장면 ②</b></p> <p>‘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 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p>	<p>상호 소통하기보다는 각자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상대방은 이를 묵묵히 듣기만 하는 대화 상황을 통해 아버지와 창섭이 일정한 거리를 지닌 관계임을 알 수 있음</p> <hr/> <p>창섭의 입장은 간접 화법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아버지의 견해는 직접 화법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작가가 전통적 가치의 보존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이를 주제 의식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음</p>

작가 소개 이태준

강원 철원 출생. 단편 소설에서 허무와 서정을 추구하며 완결성 높은 구성을 보여 주었다. 작품에서 도시의 하층민과 노인 등 소외된 인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소멸해 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는다. 주요 작품으로는 「까마귀」, 「달밤」, 「복덕방」 등이 있다.

주제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한 물질 만능 사회 비판

서술상의 특징

- 주로 '창섭'의 시각에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결말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전환됨
-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함 **근거** 나무다리(근대) ↔ 돌다리(전통)

주요 인물

창섭	서울에서 거주하는 의사이며 맹장 수술에 정평이 나 있음.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뒤 아버지의 세계와의 결별을 느낌
아버지	삼말에서 거주하는 농부이며 땅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음. 이익을 위해 땅을 사고파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아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함
어머니	서울로 가서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함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 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꺼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A]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알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골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얽한 것, 얽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

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 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늘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독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았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01**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0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라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문제 P.031

고전산문 06  
국순전 [임춘]

정답 01 ③ 02 ⑤ 03 ② 04 ①

[01~04] 1409모평B  
임춘, 「국순전」

01 ③

정답 풀이

국순과 섭법사의 담론, 산도와 관상을 잘 보는 이의 예언, 임금에게 충애를 받았던 일, 벼슬에게 물러나게 된 일 등의 예화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국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시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윗글은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국순'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국순과 임금의 대화 등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농서(진·한 시대 군 이름)', '진 후주', '당 나라', '중국' 등의 시·공간적 배경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순의 선조 - 국순의 행적 - 국순의 후대' 순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국순의 행적' 또한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임금이 정사를 폐하게 되었음에도 간언할 줄 모르는 국순을 '마치 원수처럼 미워'한다고 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돌았다.'라고 했으므로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⑤

정답 풀이

㉔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국순은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 국순이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물러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바로 앞 문장에 나타난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은 국순의 성품을 '만경창파(만 이랑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으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에 빗댄 것이다.
- ② ㉔은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라며 산도가 장래에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 ③ ㉔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국순의 불만이 드러난다. 그리고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에는 현재의 낮은 벼슬을 넘어서려는 국순의 심경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국순의 자존심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㉔에서는 국순이 '권세를 얻게 되'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맡았다고 했으므로, 국순이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03 ②

정답 풀이

[B]에서는 주인공인 국순의 성품과 그에 대한 예언을 기술하고 있으며, [C]에서는 국순의 업적과 과오를 함께 기술하고 있다.

07 ②

정답 풀이

〈보기〉에 따르면 기차는 '민중들'에게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그러나 뒷글에서 영채, 병욱, 선형, 형식과 같은 인물들은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해 기차에 탄 것이지, 고향 상실을 두려워하며 기차를 탔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기차는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던' 소재에 해당한다. 뒷글의 인물들은 기차를 타고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으므로, 이들은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이광수의 소설에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특히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뒷글에서 영채는 잊어버려 했던 형식이 같은 기차에 탄 것을 알고는 '가슴이 달렁'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영채의 내적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기차는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게' 한 매체이다. 뒷글의 인물들은 모두 문명개화를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므로, 기차는 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 ⑤ 〈보기〉는 기차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기능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뒷글에서 영채가 기차를 타고 병욱과 동경으로 가려는 이유는 형식을 잊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기차는 과거를 벗어나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로 볼 수 있다.

08 ①

정답 풀이

㉔에서 영채는 '행여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불안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말로는 '아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인 '좌불안석'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간담상조'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를 뜻하는 말이다.
- ③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을 뜻하는 말이다.
- ④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을 뜻하는 말이다.
- ⑤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하는 말이다.

현대산문 05

돌다리 [이태준]

정답	01 ⑤	02 ②	03 ②	04 ⑤		
----	------	------	------	------	--	--

[01~04] 12수능  
이태준, 「돌다리」

01 ⑤

정답 풀이

뒷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면,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따라서 가장 뒤에 나온 사건은 ⑤번이다.

02 ②

정답 풀이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에서 '창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땅은 팔 수 없다는 '아버지'의 고집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창섭'은 땅을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아버지'가 이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볼 때, '창섭'이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의 세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된다. 그런데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에서 '창섭'은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창섭'과 '어머니'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그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한다는 것은 인물의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